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전주시, 재난취약 다중이용시설·어린이집·노인복지시설 특별점검 시행 방역수칙 위반업소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방역수칙 준수 홍보물 배포

최근 강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재난취약 다중이용 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 강화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일주일간 다중이용시설과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5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3.4명꼴이다.

이에 시는 본청 직원과 구청 직원으로 특별점검반을 꾸려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운영중단 10일 또는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별점검 시 방역수칙 준수 홍보 전단지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최근 도내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농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공장 등 방역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증상 여부와 상관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은 지난 16일 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의 준수를 촉구했다.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3월 긴급 멈춤 주간이 이어 이번에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대응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특히 각종 사적 모임과 동호회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 지역 방문과 행사 참여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살균·소독 전면 실시

전주시가 여름철을 맞아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악취 및 해충 발생을 막기 위해 살균·소독을 강화한다.

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지역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7만2000여 개에 대한 살균·소독을 전면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쉽게 부패하는 데다 수도전이 미설치된 원룸 밀집 지역의 경우 세척이 잘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악취 및 해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친환경 약품과 분무기를 수거업체에 지원해 수거 시마다 살균·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살균·소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자율적으로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수거용기 관리 안내 및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노인일자리 사업 경제적 안정 도와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돕고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지난 4월부터 수도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맑은물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명의 노인 인력들은 전주시 독거노인 2000가구의 수질검사를 목표로, 노인 세대를 방문해 수도물의 잔류 염소를 측정하고 2차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수해 수질이상 발생에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 취약계층 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는 평이다.

시는 또 우체국,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고 은행 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단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간호사 등 퇴직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건강·방역 등 돌

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254명의 통합돌봄 서포터즈도 꾸렸다. 건강지킴이, 자기결정권 교육, 인생노트 사업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어린이집 이야기 할머니, 시니어 맥가이버, 학교 급식지원, 장애인·아동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발굴·지원하고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어르신들이 쌓아온 경력과 전문성 역량이 발휘되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일자리말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가장 큰 복지인 만큼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생활 속 이슈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 참여할 수 있으며, 시니어클럽 및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수준과는 무관하며 사업별 경력 등 적합자가 선발된다.

/김윤상 기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노동환경 개선 집중

전주시, 안정적 노동환경 조성 위해 정책 수립 착수

전주시가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전주시는 배달대행, 대리운전 등 플랫폼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착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 9월 신성장경제국 산하에 플랫폼노동자 관련 전담부서인 플랫폼노동지원팀을 신설한 시는 오는 9월까지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이들의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우선 시는 전주시 노동자 권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를 확정

해 오는 9월중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과 노동권익위원회 설치·운영, 노동권익 보장 및 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들이 담겨질 예정이다.

시는 또 전주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플랫폼 노동자 규모와 근로조건, 사업장 근로환경, 노동시장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이후 시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수립에도 나선다. '노동 존중, 포용도시 전주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자 권익개선 ▲거대 바리스타 구축 등 3대 전략을 세운다

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3일 현대해상 8층 회의실에서 전주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라온물류, 전북 대리운전노조 관계자들이 참여해 향후 계획 및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 형태인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지 못해 사회적 전담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면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권익개선은 물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덴마크와 지속가능 협력 방안 모색

김승수 시장, 아이너 엔센 주한 덴마크 대사 만나 친환경정책·국제교류 방안 논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전주시가 세계 친환경 사업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덴마크와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교류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16일 전주시청을 찾은 아이너 엔센(H.E. Einer H. Jensen) 주한 덴마크 대사를 만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전주시와 덴마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한덴마크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만남에서 덴마크 측은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고질화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전주시와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가기로 했다. 또 덴마크의 플라스틱 재활용 등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예술교육 분야 등 다양한 국제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를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소시범 도시 사업과 에너지 디자인 3040 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아이너 엔센 대사는 최근 평화동에 조성된 확산숲속시집도서관을 방문해 지식과 콘텐츠의 중요한 원천인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팜복예술공장에서 추진 중인 예술놀이와 덴마크의 예술교육 및 예



지난 16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주시청을 찾은 아이너 엔센(H.E. Einer H. Jensen) 주한 덴마크 대사를 만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전주시와 덴마크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프터스플레 등 교육 관련 교류 방안도 모색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2월 덴마크의 교육 관계자들과 함께 '다른 길을 가도 괜찮아, 인생학교에 대한 전주시와 덴마크의 대화'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엔센 대사는 "전주시는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를 도입하고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한 수소 융복합사업을 추진하는 등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은 물론 아동교육, 예술교육, 도서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덴마크는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등의 정책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국가로, 그린뉴딜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전주시와 교류할 점이 매우 많다"면서 "2050 탄소중립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혁신적인 사례를 통해 가장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